

지역 소식통

부안군, 암 예방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 실시

부안군은 21일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조기 검진...

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암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21일 오전 10시부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 국가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읍시보건소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 환자 사망률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대상자별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장암 검진이 해당되며,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은 성인과 소아로 나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성인 암 환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머무지 말고 서둘러 검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남대로 갈재 관광자원 추진

정읍시,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교통로였던 삼남대로 갈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각하기 위해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삼남대로 갈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은 2021년 12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삼남대로 갈재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 갈재 활용 방안 모색, 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정읍시는 지난 19일 삼남대로 갈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삼남대로 갈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삼남대로 갈재 배경과 현황 △정비계획의 기본구상 △부분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활용 방안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등 삼남대로 갈재의 정비 방안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삼남대로 갈재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지정 구간 외 셋길 편백림 및 황토길 활용 방안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갈재의 관광자원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이학수 시장은 "삼남대로 갈재는 과거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정읍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삼남대로 갈재가 대표적인 역사·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황혜숙 부의장, 정상철 의원, 용역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공

아산면 대동리·학전리 일대 14.5km, 197가구

고창군이 아산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131억원(국비 92억원, 군비 39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14.5km, 197가구 배수설비를 정비한다.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후 이달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상구역은 크게 아산면 대동리, 학전리 일대 처리분구다.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가구에서 운영해 온 개인 오수

처리시설은 폐기하고, 하수관거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를 정비해 각 가구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와 하수도 정비구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임무 지원을 위해 복지 시설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안해경, 경비함정 직원 근무환경 개선

유류바지 유희공간 리모델링... 행정실·휴게실 등 마련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경비함정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임무 지원을 위해 복지 시설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 4척이 증가 배치되어 경비함정에 근무직원 30명 가까이 늘어 전용부두에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

특히 기존 전용부두에 있던 유류바지 유희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해 경비

함정 정비 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행정실'과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는 '휴게실' 등을 갖추어 경비함정 직원들이 좁은 함정 생활에 지치지 않고 업무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영교 서장은 "함정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개최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주관

맞춤형 정책활용 컨설팅 논의 등

부안군과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9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8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대표 전정희) 주관으로 부안효요

양병원을 비롯해 은총의집, 내래복지센터, 부안노인복지센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영이네, 유한회사 우주요양원, 주식회사 대신에프에스, 사단법인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 등 8개 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구축해 여성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업문화 구

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함께 진행된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기업 맞춤형 정부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활용 컨설팅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여성친화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위한 점프카 사업 운영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과 외래치료 유지를 위해 '점프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점프카 사업은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연계 받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외래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이

다. 대상자들이 정신과적 증상을 약물 치료를 통해 적절히 관리하고, 재발을 통해 스스로 약물 관리와 병원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일환으로 지난 14일 시와 정읍아산병원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원활한 의뢰·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도 했다. 순희경 보건소장은 "점

프카 사업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뢰와 연계가 활발히 이뤄져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푸른숲자연장 추모목 신규 식재

군, 자연장 이용객 수요 대비

고창군이 증가하는 자연장 이용객 수요를 대비해 고창푸른숲자연장 내 추모목(백일홍) 30그루를 추가로 심는다고 20일 밝혔다.

고창푸른숲자연장은 조성당시(2012년)만 해도 연간 106기 안장이 이뤄졌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현재(2023년) 말 기준은 한 해 686기의 안장이 이뤄지는 등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푸른숲자연장의 전체 안장은 4186

기에 달한다. 이 중 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변에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이 전체 안장기수 중 70%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고창푸른숲자연장은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등 3가지 유형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운영 중이다. 수목형과 정원형은 30만원, 잔디형은 25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40년간 유골안장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2022년에 개장한 무장동 두송자연장과 함께 자연장 2개소를 운영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Child Abuse Reporting' (착한신고) featuring a woman covering her face and a 112 hotline logo. Text includes: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112 hotline.